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www.sportsdonga.com

강등위기 서울, '플랜A'가 없다

스쿼드는 K리그 최상위권인데 '확실한 전술' 부재 11위 전전

FC서울이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 홈경기에서 0-1로 져 2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상위권을 노릴 만한 전력을 갖췄지만, 2시즌 연속 파이널B(7~12위) 추락뿐 아니라 K리그2(2부) 강등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박주영·기성용·지동원·나상호 등 울산·전북과 견줄만한 전력 불구 박진섭표 전술, 반시즌째 미완성 느슨해진 조직력·허무한 실점만 간절함 없는 선수·나태함 지적도

FC서울 최근 5년간 성적 (19일 현재)

시즌	순위	전적	득점	실점	득실차
2021	11	6승6무11패	21	27	-6
2020	9	8승5무14패	23	44	-21
2019	3	15승11무12패	53	49	4
2018	11	9승13무16패	40	48	-8
2017	5	16승13무9패	56	42	14

K리그1(1부) '전통의 명가' FC서울이 심상치 않다. 2시즌 연속 파이널 라운드 하위그룹(파이널 B·7~12위) 추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아니 이대로라면 아예 K리그2(2부)로 강등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서울은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20라운드 순연경기에서 0-1로 패했다. 15일 전북 현대와 원정경기(2-3 패)에 이은 2연패다.

올 시즌 23경기에서 서울은 고작 승점 24(6승6무11패)로 12개 팀 중 11위다. 파이널 라운드 상위그룹(파이널 A·1~6위)의 마지노선인 6위 인천 유나이티드(9승6무9패·승점 33)와 격차는 상당하다. 덜 치른 1경기를 이겨도 요원하다.

서울의 추락은 새삼스럽지 않다. 2018시즌 11위로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에서 간신히 생존했던 서울은 지난 시즌은 9위로 마쳤다. 올 시즌 초반 2, 3위권을 오갔으나 5연패를 포함한 리그 12경기 무승의 수렁에 빠졌다. FA컵에서도 K리그2 서울 이랜드FC에 무너졌다. 그 뒤 3경기 무패(2승1무)로 살아나는가 싶었지만, 그 이상은 무리였다.

문제는 경기력이다. 꾸준한 경기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살림살이가 위축돼 몸집이 다소 줄었다고는 해도, 서울의 스쿼드와 전력은 약하지 않다는 게 축구계의 중론이다.

개막을 앞두고 국가대표 공격수 나상호, K리그에서 검증된 특급 미드필더 팔로세비치, 독일 분데스리가를 경험한 박정빈을 데려왔다. 여름이적시장에선 전 국가대표 지동원, 브라질 공격수 가브리엘을 수혈했다. 기성용, 박주영, 고요한, 조영욱 등 기존 주축들과 시너지가 발휘되면 울산 현대, 전북과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전력이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진의 원인을 놓고는 여러 이야기가 거론되는데, 벤치의 역량을 빼놓을 순 없다. 박진섭 서울 감독은 제주전 직후 "승리를 위해, 좋은 경기를 위해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은 포메이션과 선수 구성에서 변화가 심하다. 지휘봉을 잡은 지 반 시즌이 넘도록 뚜렷한 플랜A도, 고유의 무기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탄한 조직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은 최소 득점(21골)에 시달리고 있고, 수비에선 허무한 실점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선수단의 자세도 아쉽다. "충분히 훈련하고 열심히 준비한다"고 박 감독은 항변하지만, 온 힘을 쏟아낸다는 인상은 없다. 종료 휘슬이 울린 뒤 다리가 풀려 그라운드에 주저앉는 선수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서 "나태하다"고 지적할 정도다.

서울은 2020시즌 선수단 연봉 총액(약 94억 원)과 평균 연봉(약 2억 원) 모두 3위였다. 전북(총액 169억·평균 4억3000만 원)과 울산(총액 146억·평균 3억6000만 원)에는 뒤지지만, '고비용-저효율'이라는 오명을 피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규모였다. 대체 서울의 추락은 어디까지일까.

▶ 프로축구 관련기사 6면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허재가 모델로 등장하는 오이일글로벌의 숙취해소제 '한잔허재' 광고

5차례 음주운전 전력 허재 숙취해소제 광고모델 시끌

누리꾼들 "부적절한 모델 발탁" 따가운 시선

농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방송인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허재(56)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숙취해소제 광고 모델로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식품업체 오이일글로벌은 숙취해소제 '한잔허재'와 '속편허재'를 출시하며 광고 모델로 허재를 발탁했다. 제품명에 허재의 이름이 들어가는 만큼 개발 단계에서부터 허재를 모델로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개한 온라인 광고 영상에서 허재는 정장을 입고 '소주 허재 맥주 허재 양주 허재'라는 가사가 담긴 음악에 맞춰 댄스를 보여주고, '한잔할 땐 한잔 허재'라는 문구를 선보이며 마치 술과 숙취해소제를 권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언뜻 보면 평소 애주가로 알려진 허재의 이미지와 잘 맞아 보이지만, 허재의 음주운전 전력이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허재는 5차례 음주운전으로 고욕을 치렀다. 선수로 활약하던 1993년과 199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100일 면허정지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태극마크를 반납한 적이 있다. 1996년에는 만취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붙잡혀 구속됐다. 당시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였고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하루 만에 다시 무면허 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불법유턴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허재가 숙취해소제 광고 모델로 나선 것이 부적절하다며 비난의 글을 남기고 있다. 누리꾼들은 "낯짝 두꺼운 것도 정도가 있지. 선을 넘었다", "양심이 있으면 모델 거절할 법도 한데 뻔뻔하다", "광고 모델로 섭외한 업체도 수락한 허재도 둘 다 문제", "광고는 물론 방송에서도 퇴출시켜라" 등의 글을 남겼다.

중앙대 재학시절인 1985년 국가대표에 선발된 허재는 1988년 기아자동차 농구단에 입단해 프로로 데뷔했으며 '농구대통령'으로 불리며 한국남자농구의 한 시대를 리드했다. 2004년 30년의 선수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그는 2005년 KCC 감독과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2019년 '정글의 법칙'으로 SBS 연예대상 챌린저상을 수상하는 등 방송인으로도 승승장구했다. 그는 최근 막을 내린 JTBC '뭉쳐야쏜다'를 필두로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12시 내 고향', MBC '안싸우면 다행이야'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CJ CHEILJEDANG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